

# 광주 외국인 유학생들 '지역 홍보' 나선다

### 작년 '1회 외국인 유학생의 날' 계기 '서포터즈' 구성 활동 호평 올해도 베트남 등 18개국 22명 발대식...연말 '우수자' 표창

올해도 광주지역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역 대학은 물론 광주시 홍보에 나선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시청 다목적홀에서 '2024년 광주시 외국인 유학생 서포터즈 발대식'을 가졌다. <사진> 발대식은 위촉장 수여, 서포터즈 선서, 기념 촬영, 사전 활동 교육, 서포터즈 간 소통 시간 순으로 진행됐다.

서포터즈는 광주지역 대학(원)에 재학 중인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일본, 중국 등 18개 국가 유학생 22명으로 구성됐다.

현재 광주지역 유학생은 15개 대학에 5천800여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이번 서포터즈 모집에 22개국 51명의 유학생이 신청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5월 외국인 유학생들의 상호 소통과 유학 생활을 격려하고 우리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중외공원 일대에서 '제1회 광주 외국인 유학생의 날'을 개최, ▲대학별 유학생 홍보부스 및 외국인 유학생회, 학과실습·체험부스 등을 운영하는 '광주 유학박람회' ▲파빌리온 참가국 출신 유학생 제작 영상을 전시하는 '비엔날레 파빌리온 팝업유지업' ▲광주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로 구성된 '광주 외국인 유학생 서포터즈' 홍보 부스 등을 운영했다.

이를 계기로 같은 해 4월 24개국 36명의 유학생으로 '광주 외국인 유학생 서포터즈'를 구성, 발대식을 가졌으며 한 달 간 출신국가별 파빌리



온과 제14회 광주비엔날레를 알리는 영상을 제작했다.

이 같은 활동이 호평을 받음에 따라 광주시는 올해 서포터즈의 기간과 역할을 대폭 확대했다. 서포터즈는 앞으로 광주시·지역 대학 홍보 행사에 참여하며 광주에서의 유학 생활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홍보 활동을 펼친다.

광주시는 이들에게 매일 활동비를 지급하며, 연말에는 활동에 적극 참여한 우수 서포터즈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은 "모든 유학생들은 문화의 다양성을 키워주는 소중한 시민"이라며 "광주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을 대표한다는 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발로 뛰어달라"고 당부했다. /박선경기자

### 광주CBS 대표, 권신오 전남CBS 대표 겸직

광주CBS 대표에 권신오 전남CBS 대표가 선임됐다. 24일 CBS에 따르면 일부 지역 CBS 대표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함에 따라 광주CBS S 신인 대표에 권신오(67·사진) 전남CBS 대표를 선임했다.

권 대표의 임기는 오는 28일부터며, 이번 인사를 통해 광주CBS 대표와 전남CBS 대표를 겸직한다.

전남대 신문방송학과를 거쳐 동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권 대표는 지난 1992년 광주CBS 보도제작국 기자를 시작으로 보도제작국장, 선임기자 등을 역임했다. /최명진기자



## 밝은안과21, 1억3천500만원 상당 눈 영양제 기부

광주시는 24일 "밝은안과21이 1억3천500만원 상당의 눈 영양제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강기정 시장과 김근오 밝은안과21 원장, 박미경 광주제능기부센터 사무처장, 김진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최우진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눈 영양제는 광주제능기부센터 및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밝은안과21은 저소득층 학생 사시 수술 지원,

취약계층 백내장 수술 후원 등 1900년 개원 이후 의료 봉사 활동 및 기부·후원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김근오 밝은안과21 원장은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작지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취약계층 지원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나눔에 함께해준 밝은안과21에 감사드립니다"며 "소중한 마음들이 모여 따뜻한 지역 공동체를 이룬다. 지역사회 나눔 실천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경기자



## 전남도, 함평 산불 피해지에 '희망의 숲' 조성

전남도는 지난 22일 함평 대동제생대공원 일원에서 제79회 식목일을 기념해 대형 산불 피해지 복구를 위한 희망의 숲 조성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이상의 함평군수, 모정환 전남도의원, 윤영광 함평군의회 의장, 황금영(사)숲속의 전남 이사장, 임업단체, 한국농어촌공사, LH 등 공공기관 임직원, 지역 주민, 공무원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나무 심기 행사가 이뤄진 곳은 지난해 4월 산불 재난 3단계가 발령된 대형 산불 피해지 중 한 곳이다.

나무 심기 행사에선 산불 피해지가 다시 푸르른 숲으로 자라길 기원하며 산수유나무, 산딸나무, 배롱나무 3천 그루를 심었다. 또 생활 주변 나무 심기 문화 확산을 위해 대추나무, 체리나무, 태추잡나무 등 1천800그루 나무도 진행됐다. /양시원기자

## 해군 3함대, '세계 물의 날' 해양환경 보호 활동

해군 제3함대사령부는 "세계 물의 날(3월22일)을 맞아 최근 장병들이 이틀간 민·관·군 해안 정화 활동에 참여했다"고 24일 밝혔다.

첫 날에는 장병 10여명과 흑산면사무소, 국립공원 흑산분소, 국립공원연구원 조류연구센터 직원 등 20여명이 흑산도 배낭가미 해변에 방치된 각종 해양·생활 쓰레기를 수거했다.

다음 날에는 장병,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목포해양경찰서, 목포시청, 해양환경공단 목포지사, 서해어업관리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8개 기관 직원 40여명이 허사도 해안가 일대(목포시 신항로 입구)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펼치며 해양환경 보호에 앞장섰다.



김동현 해군 제3함대사령부 상병은 "이번 활동으로 해양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었다"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지역 봉사에 동참하고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해군이 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혜선기자

## 전남도,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엄수

전남도는 지난 22일 목포 현충공원에서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서해수호 55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기렸다.

기념식에는 명창한 전남도 행정부지사, 이연득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남도지부장, 보훈단체장, 김경률 해군제3함대사령관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영웅들이 지켜낸 서해바다! 영원히 지켜나갈 대한민국"이란 슬로건 아래 진행된 기념식은 군악대의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헌화 및 분향, 기념사, 3함대와 목포시립합창단의 기념공연 등이 전개됐다. 이어 3함대 장병 4명, 대한민국상이군경회 1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특히 서해수호 55용사의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목포 문태도 학생 대표 2명이 이들의 사진을



배경으로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는 롤콜 시간을 가져 참석자들이 눈시울을 붉혔다.

명창한 부지사는 기념사에서 "서해수호 영웅의 애국심 덕분에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계속될 수 있었다"며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널리 알리고 예우에 더욱 정성을 쏟겠다"고 말했다. /양시원기자



## 전남·경북교육청 '상반기 영호남 교육 교류' 성료

전남도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이 지역 중심의 글로벌 미래교육 실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24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1~22일 하든비호텔 여수에서 '2024년 상반기 영호남 교육 교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류는 오는 5월 여수에서 펼쳐지는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협력 사업을 공유하고 교육 현안과 관련 해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김대중·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전남·경북 교육청 국장, 각 실·과장 등 80여명이 참석해 ▲양 교육청 패널 토의 ▲특색 사업 발표 ▲본청 연계 부서 간 업무 협의 ▲국제교육원·글로벌미래교육박람회 방문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지역에서 세계로 향하는 글로벌교육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교육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두 교육청이 미래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기자

## 장성경찰,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 안전교육

장성경찰서는 24일 "지난 22일 관내 화물 운송업체 20여곳을 방문,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와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 5가지 수칙인 ▲1-2시간 운행 후 10분 휴식하기 ▲급제동·급핸들 조작 및 급가속 안하기 ▲안전거리 확보 및 전방주시, 방어운전 하기 ▲저속화물차비상등 켜기 ▲과적·적재불량 안하기를 홍보하고 경찰서장 서한문도 함께 전달했다.

전병원 장성경찰서장은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의 성숙한 교통안전 실천 문화



가 중요하다"며 "운송업체 관계자들의 관심과 안전운전 자체 교육을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성=김문태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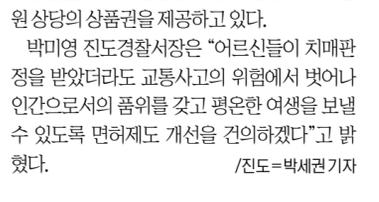
## 진도경찰, 치매환자 운전면허 반납 홍보

진도경찰서는 "최근 치매환자가 병원에서 나와 운전하다 담벼락에 충격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데 따라 '치매환자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홍보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진도군은 매년 10여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는데, 치매환자는 1천500여명에 이르고 있어 앞으로도 교통사고에 의한 위험성이 높아 경로당, 노인대학, 보건소, 치매센터 등을 통해 교육하고 있다.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의 경우 군청에서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고 있다.

박미영 진도경찰서장은 "어르신들이 치매판정을 받았더라도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갖고 평온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면허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진도=박세권기자



## 구례 토지파출소, 봄철 교통사고 예방 홍보

구례 토지파출소는 24일 "지난 22일 관내 파도리 마을 등 7개 마을회관을 방문해 마을 어르신을 대상으로 봄철 사발이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본격적인 봄철을 맞아 어르신의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사발이 등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도 상존함에 따라 급격도로 운행 자체와 마을 내에서 이동 수단으로만 운행하도록 당부하고 이륜차 안전운행·전동차 안전사고 주의·보행자 사고주의 등 교통상황별 대처 요령을 함께 설명했다.

장영철 토지파출소장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 예방 및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임종길기자



## 영광 백수파출소·자율방범대 합동순찰

영광 백수파출소는 "최근 백수 자율방범대와 함께 범죄 취약지역인 금융기관, 대형마트, 편의점 주변에서 범죄 예방 합동순찰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합동순찰은 참여치안 활성화 및 주민 안전을 위해 다중운집지역인 해안도로와 식당가 주변을 순찰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보이스 피싱·교통사고 예방, 범죄신고 안내 등을 했다. /영광=김동규기자